

## ‘함께’ 선언

1985 년, 저희 히가시카와정은 ‘사진의 마을’ 선언을 하였습니다.

사람, 자연, 문화와의 만남을 소중히 여기는 사진 찍기 좋은 마을을 조성하고자 한 저희들의 이념은 30 년이라는 세월 동안 사진 문화를 통해 세계의 사진과 사람들과 교류하여 웃음이 넘치는 ‘사진 문화 수도’로 발전해왔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이 아름다운 마을, 히가시카와에서  
풍요로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의 선조들을 비롯한  
전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애정으로 이 마을을 지키고 함께 키워온 덕분입니다.

한 세기 전, 일본은 큰 다툼의 시대를 겪었습니다.  
우리들은 ‘사람들이 아름답게 조화한다’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레이와<sup>1</sup>의 시대가, 그  
이전과 같이 평화로운 시대가 되기를 마음 깊이 바라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환경, 분쟁, 빈곤 등의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히가시카와는 국적과 민족이 다른 사람들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대등한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함께 살아가는 사회’,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는 ‘함께 협력하는 사회’,  
서로의 생활을 향상시키는 ‘함께 번영하는 사회’

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이에 전세계를 향해 ‘사진 문화’를 알리고 있는 ‘사진 문화 수도’  
히가시카와는 ‘함께하는 지역 활성화’의 추진을 선언하는 바입니다.

2020 년 12 월 10 일

사진 문화 수도 ‘사진의 마을’ 히가시카와정

---

<sup>1</sup> 令和, 일본에서 일왕 나루히토 즉위 뒤 사용되고 있는 연호(2019 년 5 월 1 일~)